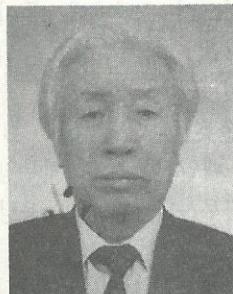


충효로 근본을 삼고 경학으로
업을 삼아 욕된 관작과 영달을
구하지 말라.

閑窓公 遺戒

坡州廉氏宗報



한 뿌리에서 가지가 나와
여러 가지가 되고 가지마다
잎이 무성하며 꽃피고 열매
익어가는 양상을 한 조상 밑
에서 번창하는 자손들에 비유
해서 한 일가의 모임을 花樹
會라고도 한다.

한 씨알에서 거대한 나무로
번창하려면 적당한 수분을 포
함한 비료의 부단한 공급과
햇빛을 필요로 하는 것은 물
론이고 심한 비바람같은 재난
을 수없이 극복하여야 한다.

한 그루의 나무가 한 개인
이, 한 기업이 생존하고 번창
하려면 바른 방법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 그루의 나무를 가꾸듯

하면 보약만을 먹는 이상으로
건강에 좋다는 사실을 알면서
도 실천하기란 어렵다는 사실
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위와 같은 이치로 한 나라
에서나 기업 혹은 한 모임에
서 우리는 유사한作用을 실
감할 수가 있다. 한 단체가
번창하려면 그 구성원 전원의
부단한 노력의 성과가 쌓여야
되는 것이다.

한 회사에 입사할 때 개
인들은 회사가 자기에게 어떠
한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계
산하기에 앞서 그 회사를 위
해 나는 어떠한 성과를 줄 수
있는가를 다짐해 봐야 현명한
생각이라고 본다. 회사나 일
개 친목회 등 단체의 屬性에서
우리는 한 사람이 백사람을
돕기는 어렵지만 백 사람이
한 사람을 돋기란 쉬운 일이

이 넘는 지금까지 나는 얼마
나 공헌을 해왔는지를 생각해
주었으면 싶다.

그 동안 大宗會 모임의 실
상을 회상해 보면 우선 어찌
한 사유인지 大宗會 活動에
全然 참여하지 않은 분이 너
무도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
다.(추산하여 총 일가수 대비
참여인 수의 비율은 1% 미만
선) 또 한 번쯤은 참여하거
나, 어느기간 참여했다가도
근간에는 일체 연락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은
大宗會 집행부의 무성의 내지
무능력의 소치임에 틀림없다.
하나 더 좀 다른 각도에서 분
석해 보면 일언지하에 집행부
의 책임만으로 단정하기는 어
느 한 구석에 여운이 남는다.
그 동안 大宗會에서 族譜를
편찬해서 配布했고 遺蹟地의

하지 말라는 宗教는 없다는
것과, 지금까지 大宗會는 族
譜편찬, 유적정화나 조상의
享祀와 基金조성에 主眼을 두
었지만 앞으로는 젊은 世代들의
의식으로도 관심을 갖도록
多目的 용도의 회관도 짓고
불우한 일가도 돋고 장학사업
등으로 인재도 양성하며, 조
직화된 혈연의 힘으로 상호
산업적 유대를 굳게하여 치열
해 가기만 하는 경쟁에 승자
가 되자는 설명을 해 왔다.
또 자신의 능력은 부족한데
참여 때마다 경비도 들고 빈
손으로 조상의 享祀에 참여할
수 있었겠는가 라고 반문하는
분께는 大宗會는 무리한 부담
을 요구하는 곳이 아니라 처
지에 부합된 정성의 손길을
더 갈망한다고 해 왔다. 크게
大宗會를 위해 공헌한 일도

大宗會長 廉 珍 泽

瞭解했다. 우리 大宗會가 보다
健實해지고 強한 推進力を 갖
고 자랑된 業績을 後孫에게
남기려면 우선 大宗會活動에
宗人 모두가 參與해야 된다.
生業에 多忙하여 시간이 不足
하더라도 參與해야 될 의무성
을 통찰하고 어떠한 경로에서
든지 지금까지 가졌던 否定的
인 고정관념을 버리고 조금이
라도 意向에 맞지 않는 감정
이 있었더라도 廉氏姓인 限
과거의 일들을 審容하고 참신
한 구상과 꼭 달성해야 된다
는 사명감을 가지고 모두가
꼭 參與하여야 된다. 이대로
더 방관해서는 안된다. 유적
들을 정화하고 조상분들의 향
사를 하는 것만이 해야 될 사
업의 전부는 아닐 것이다. 때
문에 全宗人們은 무조건적이

發行人 廉桂澤
編輯人 廉宗桓
編輯委員 仁洙, 相顯, 東右, 秀東, 弘周,
敏燮, 南燮, 基培
發行處 (坡州廉氏大宗會)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130의 2
운 140-140 전화 323-6223
印 刷 所 현대종합문화사

바쁜 방법이란 한 사람의 고집에 의한 편견보다는 여러 사람의 지혜로운 합의에서 도출되는 방법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자기 혼자만의 의견이 편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도 지혜로운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슬기이다. 또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활강령은 알면서도 실천하기란 어려운 것이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 규칙적인 운동을

란 것을 안다. 즉, 十匙一飯의 효과이다. 문제는 한 모임을 건설케 하려면 한 술의 정성이 모여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의 나는 집안을 위해 얼마나 수고하였으며, 회사, 학교, 우리나라를 위해 얼마나 공헌했는지를 가끔은 생각해 보아야겠다. 또 우리 일가분들이 다시 한번 무엇인가를 하려고 어렵게 모여 결성한 坡州廉氏大宗會를 위해 창설한지 10년

보존과 先祖분들의 享祀를 통해 坡州廉氏大宗會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성인 일가분들이 알고 있다고 본다면 活動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유의 일부는 다른 곳에도 있다고 본다. 가끔 상면하게 되는 일가분들과 대화해 보면 大宗會活動의 성격이 너무 보수적이라 젊은 世代의 性向에 부합되지 않는다는거나 또는 宗教의 이유 때문에 참여치 못했다는 분께는, 父母와 조상을 공경

없고 높은 識見이나 經論도 못가진 사람으로 나이 벌써 80이 넘은 지금 더욱이 大宗會長의 막중한 責任을 맡은 몸으로서 그 동안 大宗會 諸行事에 참여했던 과거일을 회상하며 앞으로 해야 될 일을 泱沒하니 답답하고 초조한 마음에 잠이 오지 않는다. 틈틈이 생각났던 일들을 以上과 같이 橫豎說해 봤다. 散漫한 想念들을 모아 決句해 보면 指標는 明

고 의무감을 갖고 한 데 모여서 大宗會의 목표를 再定立하고 事業의 課題를 設定하여 한 그루의 나무를 가꾸는 마음으로 우리 門中の 燦爛한 未來를 具現합니다.

일가분들의 健康과 뜻하시는 일 원만히 成就되시길 빕니다.

(1997년 霜寒에)

1. '97년봄 任員會 개최

'97년 3월 15일 11:30분부

터 13:30분간 회원 20명이 대종회 사무실(서교동 395-64)에서 임원회를 개최하여 작년도의 회계결산안 및 '97년도 예산안, 지역종친회 운영세칙안을 검토하고, 총회 대의원 수를 배정하는 등의 사안을 토의하였다.

2. 大宗會 事務室 移轉

종전까지 사용하던 서교동 사무실은 東鎬 前會長이 돌아가시고 1주기가 지난 시점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어 어려웠던 차에 基奉 고문의 배려로 '97년 3월 25일부로 용산구 西界洞 130의 2 소재 2층 약 20평 규모의 사무실로 이전하였습니다.

大宗會 소식

3. 1997년도 정기총회 개최

'97년 4월 19일(토요일) 西界洞 130-2에 있는 대종회 사무실에서 '97년도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여 다음사항을 심의의 결하였다.

가. 1996년도 회계 결산안 승인

수입지부

(단위: 원)

'96년 예 산	종 목	'96년 결 산
732,659	'95년 이 월 금	732,659
5,000,000	기금이자수익	5,000,000
1,000,000	종보간행지원	1,000,000
500,000	종보광고수입	500,000
1,500,000	현성보조금	0
0	기금에서	1,800,000
8,732,659	계	9,032,659

* 예산액 보다 300,000 추가 수입계상

종보간행지원, 규택회장 1,000,000

종보광고협찬, 동은, 우권, 학광, 현식, 홍태

지출지부

항 목	'96 예 산	'96년 결 산
전화요금	400,000	361,570
사무비	500,000	481,490
출장비	500,000	495,000
의비	1,500,000	1,024,920
향족대	800,000	851,600
종보간행	1,600,000	1,945,000
경조비	500,000	715,250
거마비(총무)	2,400,000	2,400,000
잡비	400,000	250,000
예비비	132,659	0
계	8,732,659	(8,524,830) 현금 507,829 9,032,659

다. 大宗會 會議의 定足數

大宗會 定款中 各種 會議時 參席치 못하는 任員, 代議員들의意思를 참작하는 차원에서 定款의 改定없이 위임장으로써 출석과 결의에 참여하는 것으로 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橫步의 발자취(탄신 100주년을 맞아)

横歩 廉尙燮에 關해 말을 하자면 무엇보다도 선행하여 論議되어야 할 作品論, 作家論, 文學史의 고찰 등의立場이 있겠으나 이에 對하여서는 이미 많은 參考文獻등 여러 자료가 있기에, 1997년 금년이 橫歩 탄생 100주년이 되는 것을 계기로 族譜 등 우리 門中에서의 各種記錄에서 그에 대한 소개가 소홀했던 부분을補完하는 次元의 行蹟만을 위주로 고찰코자 한다.

廉尙燮은 坡州廉氏의 後孫으로서 高祖는 譚 守儉이고 曾祖는 同知中樞府事(從二品)在鎮이며 祖仁湜은 大韓帝國中樞院 參議였고 全州, 加平, 義城, 醫泉 등지의 郡守를 歷任한 父 圭植과 母 慶州金氏의 六男二女 中 三男으로 1897년 8월 30일 서울 종로구 積善洞(속칭 떠怙)에서 出生하였다.

字는 周相, 筆名은 想涉이라고도 하고 號는 橫歩, 霽月이다.(彌雲臺와 夜照峴 중턱에서出生했다는 말도 있음) 昭格洞에서 거주하며 祖父에게

년 9월 6일 京都府立 第二中學校 3년급에 入學하여 1918年 3月 29일에 이 學校를 졸업했다.(第二中學은 당시 日本의 명문 중학으로서 1900년에 설립되어 1948년 학제개편으로 府立鳥羽高等學校로 바뀌었고 교토역에서 동쪽으로 나가면 유명한 절 東寺 근처 국도1호선 옆 九條通에 위치한 이 학교 입구에는 구 교토부립 第二中學이라는 안내문이 있었다. 이 학교를 찾은 서울대 김윤식 교수는 尚燮의 원적지가 京城府 社稷洞 245번지이고 보증인이 昌燮(尚燮의兄)이며 졸업성적이 4~5년 공히 3위로 우수한 성적이었다고 하였다.)

이어서 日本 慶應義塾大學文科, 史學을 지망하고 豊科에 入學하는데 이때가 己未독립운동 1년전 해이다. 확실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해 10월에 병을 이유로 휴학하였다. 그러나 전후사정으로 보아 己未 독립선언과 유관하다고 본다.

己未年 3·1독립운동은 아다

다. 이때의 상황을 大阪朝日新聞(1919. 3. 21자)에서 크게 보도하였는데 “수괴는 도쿄에서 잠입”이란 기사에서 혐의는 출판법위반이었다. 尚燮이 경찰유치장에 있던 기간은 3월에서 6월까지의 3개월이었고 재판은 검거된 후 20여일 뒤 동년 4월 11일 오후 1시50분 오사카재판소 高田판사, 飯澤검사에 의해 백봉재, 이경근과 함께 심의되었다. 이 때의 상황을 아사히新聞은 4월 12일판 2면에 “天王寺를 소란케 한 조선인 공판 방청금지”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세사람의 옷차림을 설명했는데 장섭은 검고 푸른색의 안경을 쓰고 싱글싱글 웃으면서 방청온 수명의 조선인을 일별했다고 전했다. 재판장이 족보는 하고 문자 “조선은 양반 평민의 구별이 없으므로 내겐 족보의 호칭이 없지요. 아마도 양민이라 하겠지요.”라며 재판을 우롱했고 다음으로 조사에 들어가야 할 차례에서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본 사건은 공공의 안전을 해칠

보냈는데 이를 본 주필이 감동했다고 전해진다.(‘30연대의 문화계’ 중앙일보 1984. 11. 2 보도… 조용만) 그후 1919. 12월 창간되는 동아일보의 정경부 기자로 근무했다.

잠깐 그의 作品에 關해 살펴보자 한다. 우선 尚燮文學의 全集이 있지만 완벽하지 못한 点이 아쉽다. 각部門의 作品수가 얼마나 되는지 學者들의 입장마다 不一致하고(사실 큰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지만) 심지어 첫 作品을 『開闢』 14~16호에 1921. 8~10월간 게재한 「標本室의 청개구리」로 보는 경우가 많다. 이 作品이 발표된 후 世人들의 새로운 관심작품이 되었고 자신에게도 새로운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는 見解때문일 것이다.

作品수에 대한 견해로는, 金鍾均 외국어대교수는 500여 편의 글 중 소설이 180여편, 평론 100여편, 수필 50여편, 기타 잡문 등이라 하였고, 郭鍾元 교수는 50여편의 단편과 10여편의 장편이라 하였는데, 필자가 計數한바로는 단편이 129편, 장중편이 30편, 평론

明의 기조로 되고 1923년 9월에는 편집주간으로 승진하였으며 1925년 3月 『東明』이 최남선이 있는 時代日報로 改題되어 사회부장직에 있다가 1926년 1월에再次 日本으로 건너갔으며 2년만에 돌아와 朝鮮日報 학예부장이 되고 1929년 5월에 淑明女高 출신의 金英玉과 결혼을 했다. 그후 매일신문의 정치부장으로 근무하다 1936년 육당이 고문으로 있던 滿鮮日報 편집국장으로 근무하다가 3년뒤인 1939년 사임하고 만주 안동의 대동항 건설사업 선전부에서 일하던중 8·15해방을 맞는다. 1946년 초여름에 귀국하여 창간되던 경향신문의 편집국장이 되었다. 6·25때는 해군으로 종군하고 1951년 3월 해군 소령으로 해군본부 정훈감실 과장으로 복무하다가 1954년 中領으로 海軍에서 豊編되고 이해 7월에 예술원 초대회원으로 되었다가 終身會員이 되었다. 11월에는 서라벌 예술대학 초대學長으로 재직하였고 그후 作品活動을 계속하다가 1963년 6월 14일 오전9시에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직

서 漢學을(童蒙先習)을 배웠고 祖父 돌아가신 이듬해인 1907년 9월 중로 수송동에 있던 官立 사범학교 부설 보통학교에 入學하였다가 普成小學校로 옮겨 졸업하고 1910년 普成中學校에 入學(1905년 소학교 入學, 1911년 보성중학 入學설도 있음) 재학 2년때인 1912년 9월 10일 渡日하여 東京麻布中學校에 편입했다가 聖學院中學으로 옮겼다. 1915

시피 國內 33인의 民族代表의 이름으로 六堂이 초안한 독립 선언서로 운동이 확산되고 이해 2월 8일 도쿄유학생에 의해(선언서 이광수 초안) 선언됐고, 이어 오사카 노동자 일동(대표 및 선언문 초안 염상섭)이 3월 19일에 오사카 天王寺공원에서 운동하려고 선언서를 인쇄하고 준비를 하던 차 사전에 정보가 누설되어 3월 6일 경찰에 의해 체포됐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방정금 수필등이 127편이었다. 또 저의 심리로 행해졌다.'라고 기술되고 있다.

상섭은 제1심에서 금고10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1919. 6. 6)받고 나와서 金東仁이 간행 한 『창조』를 찍던 요고하마의 동아일보 기자직도 사임하고 복음인쇄소에서 노동자로 근무했다. 상섭은 약 3개월 경 찰유치장에 있는 동안 아사히 同人誌 『廢墟』를 창간하였으며 그 해 10월에는 定州 五山新聞 주필 앞으로 논리정연한 장문의 독립운동이유서를 써

장암으로 別世하였다. 橫歩는 1954년 3월에 서울市 文化賞 문학부문, 1956년 3월 아세아 自由文學賞, 1957년 7월 예술원 공로상, 1962. 3월에 3·1 文化賞을 수상했고, 8月에는 대한민국 文化勳章(대통령장)을 받았다.

族譜에 의하면 슬하에 在瑢(사망), 在玹의 弟兄와 喜瓊, 喜英의 두 딸이 있고, 4명의 손자가 있는데 근황을 알 수 없다.

橫歩의 渡日修學과정과 해방직전까지生涯의 중요한 시기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믿어지는 長兄 昌燮(1890~1950)에 對해 소개코자 한다. 조상때부터의 先塋인 경기 高陽郡 新道面 龍頭里에 묻혀있다는 기록밖에 없는 최근의 族譜 孫錄내용과는 달리 韓末에서 光復 직후까지 波瀾萬丈의生涯를 가진 흔적을 찾을 수가 있었다. 그는 구한말에 신식훈련을 받는 무관학교에 入學하였으나 2학년때 이 學校가 폐교되자 국비생으로 1909년 渡日한다. 이들 12명 중에는 日本軍에서의 화려한 經歷과 광복후 국군창설시부터 업적이 지대한 荣事의, 이 (3면에 계속)

나. 1997년 회계 예산확정

수입지부

(단위: 원)

종 목	'96년 예 산	'97년 예 산
이 월 금	732,659	507,829
기금 이자 수익	5,000,000	7,500,000
종보간행지원금	1,000,000	1,000,000
종보광고수입	500,000	500,000
현성총당	1,500,000	500,000
계	8,732,659	10,007,829

'96년에 비해 + 1,275,170

4. 파주염씨 지역종친회 운영세칙 제정

각 지역에 있는 파주염씨 종친회의 조직과 제기능 및 대종회와의 관계 등을 정관 제3조(지역종회) 제16조(지역종친회)의 규정에 의해 제정하여 '97. 5. 1부터 시행하고 있다.

5. 宗報 9號 발간

'96년 11월 1일부로 宗報 第9號 2,000부를 인쇄하여 각 지역에 配布하였다.(각지역 전회원의 원고기탁과 宗報발간을 위한 광고 등 제업무에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출지부

항 목	'96 예 산	'97년 예 산
전화요금	400,000	400,000
사무비	500,000	500,000
출장비	500,000	500,000
회비	1,500,000	1,500,000
향총대	800,000	1,300,000
종보간행	1,600,000	1,800,000
경조비	500,000	500,000
거마비	2,400,000	2,400,000
잡비	400,000	1,000,000
예비	132,659	107,829
계	8,732,659	10,007,829

향총대.....영천, 나주, 강화, 보성, 청도, 함양, 보령, 옥천
(충경서원, 금강사, 효평사, 유천사, 통영)

각 지역 향사 일정('97년말)

영천 도선사 歲祭 음10월3일
(11. 2 일요일)
나주사단 향사 음10월 5일
(11. 4 화요일)

대전 孝坪祠 음10월14일

(11. 13 목요일)
언상장군산소 음10월15일
('97. 11. 17 일요일)
가까운 일요일

坡州廉氏 居住狀況(成宗 때)



응준, 신태영과, 독립군으로 활약한 이청천 등이 있다. 이들이 육군중앙유년학교를 거쳐 일본 육사 26기를 마친 것은 1912년이었고 졸업후 홍사익, 이응준은 교토제1사단에 배속되었다. 동생 尚燮이 16세이고 또 당시 명문이던 京都府立 第二中學校에 入學한 것이 1915인데 이 때의 학적부상에 昌燮이 보증인이고 당시 父親 圭桓의 나이 47세인 것을 참작할 때 尚燮의 渡日과 修學등에兄인 昌燮이가 작용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昌燮이 1924년 4월 11일에 京都帝國大學 經濟學部에 入學

1996년 10月에 문학의 해를 맞아 종로3가 종묘공원에 동상이 세워졌을 때나(문화체육부 문학의 해 조직위원회 주관 교보생명문고 협찬) 탄생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1997. 8. 22. 출판문화회관 문학사와 비평연구회 주관, 문체부, 문예진흥원 후원) 때 보도가 되었는데도 문중사람들이나 유족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 错雜한 마음 들 곳이 없다. 이 자료는 諸年譜와 학술대회를 주관한 연구회 회장이고 당일 기조발표를 한 서울대 金允植 교수가 수차 현지로 확인한 자료에 의한 것으로 고개숙여

우리 坡州廉氏의 사람들은 韓半島內에서 옛날에는 어느地方에 주로 居住하였을까. 이 궁금증을 풀어보려면 우선 古文籍을 찾아야 한다. 地理에 關한 옛서적에는 「三國史記」나 「高麗史」와 「世宗實錄地理誌」나 기타 宣祖, 英祖 때의 地理誌가 있었다. 하지만 이들 地理誌에는 行政區域의 沿革이 주로 다루어졌고 山勢와 產物 그리고 역사상의 人物이 소개되는 차원의 기록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東國與地勝覽」에는 地名의 建置沿革과 郡縣의 명칭은 물론, 形勝, 風俗, 山川, 城郭, 烽燧, 宮室, 學校, 樓閣, 亭子, 驛院, 橋梁, 土產物, 佛字, 祠廟, 古跡, 人物 題詠 등이 기록되어 있는 외에 특히 그 지역에 住居하는 主要姓氏가 언급되고 있다. 이 책은 成宗 9年 戊戌(서기 1478년) 정월에 訥齊梁誠之가 저술한 「八道地誌」를 王이 보고 여기에 詩, 文 등을 삽입하라는 命에 의해 蘆思慎等 학자들이 各題目을

책 첫머리에 京都란에는 姓氏의 소개가 없고, 卷3 漢城府나 다음의 開城府에도 우리 姓氏의 기록이 보이지 않고, 京畿道편 驪州牧란 古跡에 보면, 川寧廢縣 枕流亭 소개에 廉東亭이 謂中에 이 亭子를 짓고 李穡과 대화하기를 돌로 양치질하며 흐르는 물로 베개를 삼는다는 뜻으로 枕流亭이라 이름했다는 등 대화내용과 廉興邦의 詩文이 기록되어 있다. 坡州牧란에는 峯城에 廉氏가 있고 人物에 고려 廉悌臣은 曲城人으로 어려서 姑夫人 元의 平章 末吉 밑에서 成長하고 秦定帝가 한번보고 禁中的 宿衛로 삼았고 오랫동안 母親을 뵈려 歸國하여 江浙에서 清白한 관리로 이름이 높아 공민왕이 친히 청하여 벼슬을 주고 미정원에서 잔치를 베풀고 초상화를 그려 주었으며, 侍中の 學文은 고결하여 中原에서 비할만한 廷臣이 없다고 하였다. 벼슬은 領門下府事, 曲城伯에 이르고 재상으로 39년을 역임했다고

에는 鏡城府 西쪽 富寧都護府와 鍾城都護府(會寧 北쪽) 본부에 廉氏가 있었고 平安道에는 龍川郡 伊彥에 龍潭廉氏가 살았었다고 하였다. 위의 기록에서 한 가지 염두할 것은 근거가 된 地理誌가 王命에 의해 당대의 학자들이 업무를 분담해서 오랜 세월(完結까지 62년) 편찬하였기에 내용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책이라 해도 된다는 것이다. 내용중 우리가 廉氏들이 어느 지방에 몇명이나 거주하였을까를 알고 싶었는데 몇명이 그 지방에 살았다는 수치는 나와있지 않고 다만 우리 姓氏가 살았다는 근거만 있다는 것에 아쉬움이 남는다. 그리고 당시 각지의 廉氏들이 本貫은 무엇으로 했던가의 확답도 이 책에서는 얻을 수가 없다. 그저 어느 지방에 우리 성씨가 살았던가 하는 흔적을 아는 선에서 만족해야겠다. 지금으로부터 근 500년전의 기록이라 지금의 集姓村과 각종 유적의 흔적을

(학적부에서 확인) 하였다는 것과 定州五山中學校에서 교감으로 재직한 사실등은 확인 할 수 있으나, 그 외의 行蹟은 알 수 없다.

再言하는바, 尚燮에 對한 文學的 考察은 그에 關한 많은 文獻에 맡기고 行蹟만을 찾아 보았다.

고마운 마음 드리고 싶다.

(碧江)

分科로 하여 각자가 責任編述하여 4년만에 全秩 50券으로 完成하였고 그후 燕山君이 再編修하였고 中宗이 다시 容齊李荇에 命하여 增修케 하여 25년 庚寅(서기 1530년)에 55券 全秩으로 完成된 것이 近年 景印되는 底本이 木板 25冊이다.

설명하고 있다. 또한 廉信若은 峯城人으로 仁宗때 등제하여 벼슬이 政堂文學 祿部尚書에 이르고 체구는 적으나 膽大하여 나라에 공적이 컸다고 人物란에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곳이 우리 姓氏의 本貫임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곳 西쪽에 있는 交河縣 石淺에 廉氏가 있었고 長湍都護府란의 陵墓항에 廉悌臣墓가 臨江縣 大谷原에 있다고 표시하였고 峯城山은 高陽郡 西谷에 있어 交河縣에 접하고 산에는 烽燧가 있다고 하였다.

忠清道에는 顯宗 9년에 尚州에 屬했다가 永同縣에 屬한 栗谷에 廉氏가 있었고 瑞山郡廣地와 泰安郡 本郡, 그리고 海美縣 寺谷에 廉氏가 살았다고 하였고 慶尙道에는 慶州府安康과 現 陹川郡에 屬한 三嘉郡 三岐에 廉氏가 거주했다고 하고, 全羅道에는 全州府內 純州, 伊城, 沃野와 金堤郡본군, 磨山郡 磨良에 咸悅縣(益山郡 西谷 13里) 본현 및 南原都護府 본부와 淳昌郡 본군과 錦山郡 서쪽에 있는 龍潭縣 본현 및 長水縣 福興에 廉氏들이 거주하였고 咸鏡道

비교해 보면 부수적인 주리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되고 한반도에는 옛적에 총 인구가 얼마나 되었던가라는 문헌기록이 있어 참고로 아래에 부기한다.

文獻備考의 戶口考에서 韓半島 全體의 戶口數
太祖 4年(1395년)

戶 15,240, 口 222,748명
太宗 4年(1404년)

戶 135,403, 口 322,746
仁祖26年(1648년)

戶 441,321, 口 1,531,365
肅宗元年(1672년)

戶 1,250,298, 口 4,725,784
英祖41年(1765년)

戶 1,675,267, 口 6,974,642
高宗元年(1864년)

戶 1,703,450, 口 6,828,521
光武8年(1904년)

戶 1,419,899, 口 5,928,802
※ 高宗~光武8年(참고 乙巳保護條約 1905. 11. 17) 間 戶口, 人口數가 감소된 것이 특이하다.

- 宗桓記 -

次入韻送 廉參議 許京

耕隱公께서는 戊辰의 祸를 입은 父母님을 비롯한 일가분들의 명복을 빌며 살아 남은 당신의 죄스러운 心思 가눌 길 없어 隱居하셨으리라. 壬辰日記에서 이를 두고 漢水耕雲이라 했던가. 어쩐지 風韻의 정취가 스미는 것 같아 마음이 錯雜하다.

歲月이 흘러 芳遠이 公의 行義를 가상히 여겨 工曹參議로 맞이 하였다.

太宗11년 辛卯 9月 2日 明나라에 辨誣使로 가실 때 당시의 宰臣이던 成石磷이 詩를 지어 公을 격려하고

卞季良이 序文을 지었는데 族譜에서 이 序文은 전하나 詩는 失傳이라 하여 못 알리고 있던차 다행이 文獻에서 獨谷成石磷이 詩를 찾았기에 처음으로 알린다.

侍中曾制平安道

左尹曾叨幕下賓

從此朱門多足跡

至今白首荷親情

(廉侍中이 일찍이

평안도를 다스릴 때

이 몸 左尹으로 막하에

있었다오.

이후로 朱門에

발자취 많았는데

흰머리 된 지금까지

깊은 사랑 입고 있네.)

孤孫復振箕裘業

盛代能爲翰墨臣

專對歸來恩更重

清秋一鶯離風塵

(외로운 후손 선대의 빛난

가업 다시 떨쳐

태평성대의 文筆로 이름

높은 신하 되었네.

사신으로 임무 다하고

돌아와 더욱 군은

무거워지고

어지러운 풍진 세상

멀리한 맑은 하늘 한

독수리 기상일세.)

敏燮(大宗會 都有司)

歷史書 바로보기

歷史란?

人類社會와 그 환경의 變遷 모습과 과정을 記錄한 것이다. 그러나 歷史의 記錄은 세가지로 分類된다 하겠다. 첫째는 史官이 春秋筆法에 依하여 不偏不黨한 마음으로 記錄한 史書와, 둘째는 官의 主導下에 事實을 歪曲하여 自己 네가 한 일들을 正當化하기 为하여 歪曲記錄한 官撰史書이며, 셋째는 民間人이 自己의 歷史觀에 依하여 正史에서 漏落된 部分을 찾아 事實들을 記錄한 冊으로서 個人史書라고도 하며, 野史 또는 野乘이라고도 한다. 지나온 날들을 仔細히 알고자 하면 于先前記한 세가지의 概念을 바로 알아야 正確한 歷史의 事實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暫時 高麗史에 對하여 言及하고자 한다. 高麗 禽王十四年(西紀 一三八八年) 戊辰年 正月에 李成桂는 以夷制夷式으로 驕勇을 믿고 功세우기를 좋아하는 崔瑩을 使嗾하여 守舊勢力を 無慘히 虐殺하고 同

刑曹判書로 불렸다. 公은 아무 말 없이 祠堂에 들어가 祖上과 永訣을 告하고 아들에게 凶具를 가지고 뒤를 따르라 명하고 바로 그날로 집을 떠나 京畿道 廣州 땅 秋岑에 이르러(現龍仁市 慕賢面) 그 아들에게 이르기를 이 땅은 바로 내가 죽을 곳이라 비록 女子로서도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아니 하거늘 하물며 남의 臣下가 되어 두 姓의 임금을 섬길 수 있겠는가 하고 내가 죽거든 반드시 秋岑近方에 埋葬을 하되 절대로 비를 세우지 말라하고 絶命詞 두 귀를 남겼으니 내 平生토록 忠誠하고 孝道하는 뜻을 오늘에 와서 그 누가 알리 있으리요 하고 드디어 藥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現在 그곳에 墓가 있으며 그 近處에 圃隱鄭夢周先生의 墓所도 있다. 以上과 같이 歷史根據가 嚴存하거늘 愚川 鄭弒의 桑村蹟辨에 與地勝覽의 金觀察使 이름 아래에 仕本朝(李氏朝鮮에 벼슬하였음)라고 쓰여있다. 그

누가 언제, 어떤 史觀으로 썼는가를 생각하며 읽자.

뿐만 아니라 兄 浚이 太宗 芳遠과 함께 찾아와 出仕할 것을 권하니 듣지않고 마침내 楊洲郡 松山으로 들어가(現議政府 民樂洞) 이름을 從犬 또는 犬으로 고치고 號를 松山이라 하여 元宣 鄭矩와 더불어 忠節을 지키며 亡國의 설움을 안고 살다 갔으니 後世 사람들이 그분들의 高潔한 忠節을 기리기 为하여 松山祠를 지어 至今까지 配享하고 있다. 이와 같이 史的根據가 尚存해 있는데도 李朝實錄에는 開國二等功臣 六曹典書 太宗初에 佐命功臣 都摠制進賀使 開城留候 忠清道 都節制使 平城君 工曹判書 平壤君 乃至는 平簡公이라는 謂號까지 받았다고 記錄되어있으니 그 얼마나 徹底한 曲筆인가. 國家 築奪의 當爲性과 後世史家들의 峻嚴한 審判을 糊塗하기 为하여 각 部分에 對하여 周到綿密하게 曲筆하였으니 이러한 處事란 理性을 잃은 者들의 臨時謀免策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그 어찌 國民들

으나 모든 사람들의 입과 눈에다 재갈을 물릴 수는 없는 것이라고 象村集에 記錄되어 있으며, 이를 燃藜實記述에도 引用되었다. 또 漢陽의 벼슬 아치들은 모두가 松都의 옛 臣下였으니 새 朝廷에서는 그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큰 德이 아닐까마는 高麗로서는 그들을 論한다면 臣下로서 임금을 殺害하고 나라를 築奪한 逆賊의 罪를 免치못할 것이다. 그중에도 정상이 가중한 자는 곤은 체하여 모략을 일삼는 尹紹宗, 임금을 脅迫하던 南閭 일을 周到綿密하게 빚어낸 鄭道傳, 거짓 名聲의 權近, 허옇게 머리털이 선 成石璘은 요리조리 붙고, 不良輩 趙英珪는 圃隱先生을 擊殺하였으니 高麗朝廷의 魂靈이 있다면 寂冥한 가운데 그들에게 내리는 罰이 어찌 없을까? 果然 南閭과 鄭道傳은 李氏朝廷에 들어와서 함께 極刑을 받았으니 이 또한 因果應報의 증거인 것이라 했다. 생각컨대 高麗末 諸賢들이 禽를 입게 다른 하나는 明나라에서 王氏가 아닌 異姓인 禽, 昌을 세웠다고 말썽이 있던 것을 가르킬 수 있다. 그러나 昌을 세운 것은 正當한 것이며 禽, 昌이 異姓이었다면 그 어찌 禽王 在位 十四年동안 重臣들의 입에서 단 한 번 舉論된 바가 없었으며 明나라에서 단 한 번 말이 없었던 말인가? 明나라에서 異姓云云한 것도 事實은 明나라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그 當時 築奪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꾸며서 저희가 先唱을 하고 저희가 和答한 말이라 하겠다. 歷史란 바로 추악한一面도 있는 것 아니 글을 다 믿는다면 글이 없는 것만 같지 못하다. 歷史를 正確히 알고자 하면 그 時代의 政治狀況을 綿密히 檢討分析하여 現在의 時代狀況과 比較分析한 然後에 不偏不黨한 마음으로 直視해야 하는 要蒂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겠으며, 歷史를 研究하는 사람은 반드시 史眼이 생겨야 하는 것이다. 끝으로 이 글이 우리 廉門史研究와一步 더 나아가서 歷史를 研究하는 데 一助가 될 것을 懇望하는 바이다.

年六月에 威化島回軍과 同時에 崔瑩을 功遼罪名으로 逮捕하여 高峰縣에 付處하였다가 마침내 斬刑을 했으니 죽기 前에 내 平生 惡業을 쌓지 않았으나 林廉(廉興邦-林堅昧一族을 指稱함)을 죽이는데 지나쳤다는 말을 남기고 죽었으니 因果應報라 하겠으며 高麗亡國의 觸媒者라 하겠다. 이로 因하여 李成桂는 世祿之臣으로서 自己가 모시던 임금을 畏害하고 그것도 唯不足하여 王禍를 辛禍로 罷倒하며 國權을 篲奪하여 마침내 李氏朝鮮을 開國하고 그 理念을 正當화하기 為한 方法으로만 들어진 것이 바로 官撰史書인 高麗史인 것이다. 그러면 暫時 一例를 들어보기로 한다.

高麗末에 金自粹란 분이 있었으니 號는 桑村이요, 本貫은 慶州이며, 廉興邦의 弟子이다. 벼슬은 都觀察使였다. 至今도 安東에 그가 살던 옛 집터가 있고 그의 孝子碑가 서 있다. 李成桂가 王位에 오르자 前부터 桑村과 친하기 때문에 第一먼저 登用하려고 불렀으나 公이 아무말 없이 나가지 않더니 다음에 芳遠이

뿐인가, 松山趙煥의 初名은 薦이며 版圖判書 德裕의 아들이고 侍中 仁規의 曾孫이며, 李氏朝鮮開國功臣이며 領議政 浚의 아우이다. 麗末에 正三品知申事が 되었다. 이때 公의兄 浚이 高麗를 篲奪하는 革命에 가담할 뜻이 있음을 알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우리집안은 高麗朝의 世祿之臣이 아닙니까? 마땅히 나라와 더불어 운명을 같이 해야 합니다” 하니 浚이 아우의 뜻을 움직일 수 없음을 알고 아우를 嶺南道按廉使로 내보냈다. 公이 嶺南으로 내려가 詩를 지으니 ‘三年안 두 번이나 嶺南樓를 지나니 은은한 梅花나무 香氣는 나를 머물라 권하는구나. 술을 들어 근심씻고 老年을 보낼만 하니 平生에 이 밖에 또 무엇을 구하리’라 하였다. 임기도 끝나기 전에 高麗가 亡하니 痛哭을 하고 現京畿道 義旺市 清溪洞으로 들어가 亡國罪人을 自處하고 每日 山에 올라 松岳쪽을 바라보며 痛哭을 하니 世人들이 그 山을 가리켜 望京峰이라 하였다. 이러한 史的根據가 각處에 남아있을

의 눈을 속이고 입에 재갈을 물릴 수 있으리요. 이것이 生生不息之理인 歷史의 脈絡인 것이다.

暫時 말머리를 돌려 보고자 한다. 元天錫이 일찍이 詩를 짓는데 時事를 많이 題目으로 하여 訢고 題目에 쓰아 註解를 붙이되 禍王 以前은 國家라 하고 恭讓王 以後는 國이라 하고 李氏朝鮮에 들어 와서는 다만 新國이라고 하며 나라의 성격을 구별하려했다. 또 象村 申欽은 기록하기를 禍王과 昌王의 일은 마땅히 元天錫의 記錄을 眞實한 歷史로 하여야 한다며, 또 崔瑩이 죽으니 高麗는 사람이 없어졌고 鄭道傳이 登場하니 高麗에는 逆賊이 있게 되었다. 한 사람으로 因하여 나라가 興하고 亡한다는 것이다. 대개 高麗가 亡한 것은 戊辰年に 禍王을 廢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 當時 鄭道傳과 尹紹宗等의 무리가 禍王을 王氏가 아니라고 하는 者는 忠誠한다하고 王氏라고 말하는 者는 逆賊이라고 하는 論議를 외쳐대 朝廷을 混亂에 빠트리고 人心을 眩惑케 하였

된 것은 몇 가지 깊이 있었으니, 그 하나는 牧隱은 禍王이 廢位되자 禍王의 아들인 昌을 세우기를 主張한 것이고

敏燮(都有司)

大宗會 基金 추가모금 상황

— 기금추가 모금 실시 —

大宗會를 운영함에 있어 모금된 基金의 原金額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年 10%의 상승)

基金의 利子收益金만으로 大宗會 每年의 經常費를 충당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려니 새로운 事業을 추진할 수 없는 수준이라 '96년 7월경부터 全國 각지를 방문하면서 기금의 추가 모금을 실시한 결과 1997년 4월말 현재까지 다음과 같이 모금되었기 (약 5,700만원) 공고합니다.

보시다시피 기금만으로는 현 상유지의 수준임을 諒察하시고 보다 현실적인 사업을 추진될 수 있도록 이웃분들께도 홍보하시어 성과 있도록 일가분들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大宗會 基金 추가모금 상황

'97년 4월말 현재
(단위: 만원)

○珪澤	2,000
○水原, 保寧 宗親會 各	500
○洪燮	300
○琦燮	200
○東浩 ○東畧 ○權翊 ○泰模	
○鍾建 ○洪太 ○安慶 ○德洙	
○東鎮 ○字權 ○相顯 ○車澤	
○弘周 ○東右 ○賢植 ○昌勳	
○宗桓	各 100
○昌鎮	60
○學光 ○東煥 ○秀東 ○永錫	
○燉鎬	各 50
○江陵宗親會	30
○咸陽(斗坪)	30
○昌賢 ○東玉 ○喆浩 각	20

計 5,730만원

유적을 보전하자

얼마전 고향인 경상도 서부 지방에 있는 조상분들의 遺蹟을 찾았던 일이 있었다.

오래된 墳墓는 碑石이 없거나 있어도 초라하고 글자의 획이 오랜 風霜에 磨耗되어 내용을 잘 읽을 수가 없었다. 더욱이 齋室이나 亭閣에 懸板이 있어도 구석진 곳에 걸려 빛이 바래고 保存상태가 소홀해 보였던 곳이 많았다. 요즘에는 몹쓸 소행들이 많아 혹시 盜難이나 毀損이라도 되면 누가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다시 원상대로 제작해 놓을 수 있을지 심히 염려되었다. 懸板들은 내용만이라도 누군가에 의해 記錄되어 보관하여야 한다고 절실히 느꼈다.

그동안大小宗中에서 여러 번의 族譜를 刊行하면서各地에 散在해 있는 遺蹟들을 소개하고는 있지만 位置와 간단한 來歷를 소개하는 수준으로 墓碑文, 堂記 上樑文 등 내용을 바탕으로 한 歷史를 알기에는 不足한 내용이 많았다고 보며, 더욱이 해당 유적을 관리 保全할 책임이 있는 門中에서 조차 이러한 고려가 않

은 한듯 했고 또 내용등이 한 자로만 되어있어 解讀할 수 있는 짧은이가 몇이나 될지 하는 마음으로 누군가에 의해 바르게 번역되어 소개되고 保全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 門中の 寶物은 위와 같은 遺蹟뿐만이 아니고 遺稿나 行蹟등을 기록한 正確한 歷史도 門中の 貴重한 寶物임을 再認識하여야 한다. 간혹 族譜에서의 記錄을 옛 文獻에서 確認할 때는勿論이지만 族譜 등에서 없던 새 記錄을 대할 때 그 기쁨은 비할 바 없이 대단하다.

우리 門中 1~2세 선조님의 行蹟은 고려말기였는데 李朝易姓革命期에 戊辰之禍로 화를 면한 일가분들이 奧地에 隱遁하면서 出他하지 않았던 때에 李朝초에는 고려말기의 歷史를 歪曲하거나 功績을 抹殺했던 관계로 正確한 記錄을 접하지 못한 與件 속에서 우리 門中の 族譜는 刊行되었던 것 만도 다행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門中の 歷史를 族譜에서 배워왔는데 그 內容中에는 가끔

疑問되는 사항이 있었고 어떤 內容은 옛 文獻과 差異가 있어 당혹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예를 들어 우리 門中에서의 族譜 初版本은 肅宗30年(1704년)의 甲申譜이고, 다음이 英祖 29年(1753년)의 癸酉譜이다. 이 두 族譜의 처음을 보면 함께 始祖를 顯, 다음이 信若, 希憲, 純彥 順으로 되어 있다. 반면 宣祖中葉에 編著한 氏族源流(趙從耘 지음 1607~1683)는 우리 初刊本보다 60~100년이전에 當時 全國의 氏族 540여 門中の 譜系를 소개하면서 瑞原廉氏는 始祖刑明 다음이 位 可稱, 漢, 顯등으로 現在 우리 後孫이 確認하는 系統에 보다 근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한 예에 불과하다. 자세히 族譜를 관찰해 보면 연구되고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음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조상분들의 行蹟은 근거 없이 위상만 높혀 族譜에 등재케 한다고 해서 孝道나 崇祖의 功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 반대로 그 記錄이 사람들에 의해 肯定을 못 받거나 어느 기회에 그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는 오히려 祖上을 육되게 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이미 가지고 있는 遺蹟이나 遺稿를 잘 保全하고 補完하는 한편 과거의 새로운 寶物을 발굴하고 앞으로의 새로운 寶物을 창조하도록 노력하자.

(碧江)

우리의 본관은 —廉氏의 本貫—

本貫이란 始祖가 탄생하고 장기간 거주했던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本籍, 貢籍, 鄉貫, 籍貫, 姓貫, 族本 등 여러 가지로 불리웠으며 略해서 本, 籍, 鄉이라고 했다.

中國에서는 漢代부터 이에 關한 기록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보다 늦어 新羅末에서부터 이에 대한 흔적이 보

려 肅宗 16年(서기 1115년) 開城 廉氏配 沈氏墓誌와 廉瓊愛墓誌에 의하면 廉德方, 廉信若, 廉瓊愛는 峯城人이고, 忠敬公이 曲城府院君, 菊坡, 東亭 두 분이 瑞城君으로 봉해졌다.

위의 峯城, 曲城, 瑞城은 지금의 坡州郡지방(일부는 이북)의 옛 이름으로 「東國與地勝覽」에 의하면 坡州는 波州라고도 하며 고구려 때 迹忽, 迹彌, 坡害平史, 領蓬라 했고 신라 景德王 때 峯城, 坡平을 來蘇, 交河郡에 속했다가 顯宗 9년에 楊州 瑞原으로 하여 長湍縣에 속하고 文宗 17년에 開城府에 속하고 李朝太祖 2년에 瑞原, 坡平 등 이름을 합하여 原平郡에 太宗 때 交河縣에 世祖 6년에 坡州로 하였으며 郡名은 坡害平史, 坡平, 鈴平, 迹忽, 峯城, 瑞原, 原平, 曲城 등이라고 建置沿革을 설명하고 있다.

이상의 기록등에서 廉氏의 本貫은 坡州 單一 本貫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다. 지금의 호적에서 廉氏의 여러 본관이 있음을 생각해 볼 때, 中始祖이전의 기록으로 지금의 坡州 이외의 本貫은 없었던 것이 李成桂의 易姓革命期



- 坡州廉氏 水原宗親會 - (栗田會館 建立)

中始祖 忠敬公의 12代孫이신 譚讓德께서 지금으로부터 약 350年前인 서기 1650년경에 慶北 尙州에서 이곳 水原으로 入鄉하여 지금까지 15대가 이어져 162世帶 800여명의 일가가 長安區 栗田洞 일대에 모여 살아왔다.

1990년 8월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先塋인 二儀洞 소재 山 13정보의 林野中 일부인 7,000여평이 매각됨에 따라 1994년 3월의 총회에서 門中

의 會館을 建立키로 합의하고 5월에 대지 140평을 4억원에 매입하여 '95년 8월에 건축허가를 얻어 '96년 3월에 착공하였으나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공사가 일시 중단되었다가 5월에 재설계를 하고 10월에 다시 허가를 받아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성균관대학교역 앞 장안구 율전동 228의 13번지 108평의 대지위에 지하2층, 지상4층 총공사비 약8억원으로 연건평 1,205m²(364.5평)의 철근콘크리트 建物을 세워 栗田會館이라 命名하고 이 건물을 4층에 水原宗親會 사무실을 개설하였다.

인다.

신라 憲康王 2年(서기 876년) 崔致遠이 쓴 河東雙溪寺, 眞鑒禪師 塔碑文에 "...禪師는 大皇龍寺에 貫籍을 두었고 ..."라는 글귀가 있고, 51代 眞聖王代에 建立한 忠州 月光寺 圓郎大禪師 塔碑文에는 "...母 ○氏 族本取 城郡人也 ..."라는 기록이 있고, 그 후 佔畢齊의 護聞諛錄에 本貫이란 글이 있고, 이보다 앞선 고려사 太祖元年 기록에 貫鄉이라는 말이 보인다. 처음에는 사회上層部 士族부터 쓰이기 시작하다가 점차 庶民에게도 쓰이게 되었다. 時代에 따라 戸籍法이 改定되고 革命이나 戰亂이 거듭되어 民草들의 居住地 이동이 심해지고 혹은 숨어사는 사람들이 있어 오지에서 오래살다 보면 始祖도 잊어버리는 사례가 많아져 새로 호적을 기제케 될 때 추상적으로 정해 버리거나 지금 살던 곳을 本鄉으로 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 人口가 많아질수록 同族同本同姓의 원칙에서 벗어나 異族同本同姓(南陽洪氏에는 士洪, 唐洪으로 칭하는 派가 있다.)

방), 栗谷(永同지방), 保寧, 全州, 純州(全州屬縣), 伊城(全州屬현), 沃野(全州屬현), 羅州, 南原, 順天, 潭陽, 茂朱, 靈巖, 靈光, 金提, 淳昌, 龍潭, 咸悅, 福興(長水지방), 康津, 茂長, 谷城, 海南, 尚州, 慶州, 晉州, 星州, 密陽, 順興, 永川, 宜寧, 知禮, 三岐(三嘉 별호), 高靈, 靈山, 昌寧, 江陵, 寧越, 旌善, 金城, 平康, 信川, 文化, 鏡城, 登州(安區 별호), 龍津(이하 읍호미상), 石泉, 龍潭, 坡島, 龍岡

異族異本同姓(金氏는 100本이 넘는다)

同族同本異姓(金海金氏, 金海許氏 등)

異族同本異姓(慶州, 廣州, 密陽 등은 여러 姓氏의 本鄉이다) 등 현상이 일어났다.

우리 廉氏姓도 增補 文獻備考에 本貫이 74여개소가 있고 昭和5년(서기 1930년) 10. 1 국세조사 때만해도 75 本貫이 되었었다. 그러나 廉氏姓의 來歷을 고려사에 보면 “文宗 10년 丙申(서기 1056년) 2月에 廉可儔은 廉位의 아들로 始祖 廉刑明의 後孫이며, 峯城人으로……”라는 기록과 고

인 戊辰年에 二世祖분들이 禍를 당하여 사방으로 피하였다가 朝鮮建國後 出仕치 않고 全國 오지에 은거하던 중, 피해서 살던 입장을 고려해서 새 호적을 등재할 때 始祖의 本貫을 편의상 기피하고 혹은 수대를 살다가 잊어버리기도 하여 그때마다 살던 지명을 本貫으로 했던 관계로, 여러 本貫이 되지 않았는가 추정된다. 이와 같은 추정의 근거로서 지금의 호적상 본관이 다른 廉氏들이 始祖를 刑明, 懶臣으로 하고 있거나, 시조를 모르거나 또 坡州廉氏의 시조와 다른 분을 시조로 명기한譜系가 없다는 사실이 있다. 中始祖가 같거나, 坡州廉氏의 譜冊에서의 祖先의 한 분을 始祖로 한 문중이나 확실한 근거가 없는 廉氏들은 坡州單一 本貫으로 하여야 된다고 생각된다.

(※ 주: 이러한 분은 大宗會에 오면 호적을 改貫하는 방법과 근거서류를 제공받을 수 있다.)

(碧江)



보성 정화사업 소식

정화사업 上樑式 거행

보성 문중에서는 유적지 정화 사업을 위해 종합계획안을 수립하고 그 1차공사에서 영사 제 뒤에 건물을 세우기로 '97년 5월 1일에 계약을 하고 공사를 추진하던차 공정의 약

50%가 進展된 10월 13일 건물의 上樑式을 성대히 거행하였다.
(현재까지 헌성 申込額 약 19,800만원 공사비 지불 9,500만원)

한 달에 책 한 권 읽는 사람들

학교만 벗어나면 책을 안 읽는다는 말이 있다. 책을 읽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여기는 것인가. 독서는 다름아닌 공부고, 공부는 하기 싫은 일이었으므로 학교를 떠나자마자 공부에서 벗어난 것만도 시원한데 학교를 벗어난 자유천지에 나와서도 책을 읽어야 하다니, 천부당 만부당해서 책과는 담을 쌓아 버리고마는 것인가. 물론 여기서 독서가 생계의 수단인 사람은 제외해야 한다. 직업으로 책을 읽는 것은 독서가 아니다. 밥을 퍼주고 집을 만들어 주는 노동이기 때문이다. 집이 있고, 밥이 있다고만 해서 만족스레 살아가는 것도 아니다. 알고 싶은 것이 궁금하고, 새로운 재미를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또한 사

에서도 책은 읽어 무엇 하느냐는 독서 무용론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지적 허무주의를 내세우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그는 독서행위가 몸에 배어 있지 않거나, 책만 들면 권태로워서 책 한 권을 다 읽어내는데 몇 달이 걸리는 사람들의 역설이요, 푸념일지도 모른다.

많이 알수록 좋지 않은 일이 생기더라는 반지성주의자들이나, 문자를 읽어내는 사람이 많을수록 다스리기를 귀찮아하는 통치자의 문맹정치가 아직도 존재하지 않는 바에야 사람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지성추구를 저해하는 세력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은 확실하다.

우리나라 성인의 한 해 평

배우자를 고르는 것만큼 어렵다고 말한 옛사람도 있었듯이 읽고 싶은 책을 고르는데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기가 성가셔서 책과 인연을 끊어버리는 생활을 계속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사람에게 딱 한 가지 권할 말이 있다. 현란한 책광고가 믿기지 않으면 일간신문의 출판 혹은 독서 특집면(주 1회)에 실린 3행짜리 신간뉴스를 꼼꼼히 훑어보라. 책이 잘 팔리지 않기 때문에 출판사들이 더욱 기를 쓰고 내놓는 책 중에서 신문사에 기사홍보를 의뢰해오는 책만도 하루 20권 이상이다. 신문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겠지만 분류별로 40여종 이상씩의 신간뉴스 속에는 틀림없이 자신이 당장 필요하거나 읽고 싶은 책이 적어도 한 두 권은 있게 마련이다. 신간 광고만큼이나 크게 대서특필한 출판기사를 보지 말고, 한쪽 구석에 책 한 권에 책이름과 저자 이름, 분류,

廉氏女人의 氣質

다른 門中의 사람들 중 특히 坡州廉氏의女人을 며느리로 맞이한 집안에서는廉氏의女人들은 거세며女丈夫라고 들 하는 말을 여러 번 들었다. 門中에서도 흔히 딸들이自主性이 强하고 당차다며自評하는 분들이 많다.

女權이 急速度로伸張되고 있는 요즘 어찌 우리 문중에 서만 있는 現像이겠는가 싶지만 感歎인지 謂謗인지 혹은比較言辭인가는 확실치 않으나廉氏의女人들이 세차고 오달지다는 평가에는 필자로서도首肯이 된다. 아마 이러한女人의氣質은 우리門中の傳統이 아닌가 싶다. 우연히 고려사를 들추다가 청렴廉字만 보면 항시 눈이 멈추는 습관에 의해 한 구절을 보니 慎妃廉氏瑞原縣人曲城府院君悌臣之女以選入封洪倫韓安之強辱諸妃也妃拒不從恭愍既見弑剃髮爲尼

-券89.列傳2-

(慎妃廉氏는 서원현인으로曲城府院君悌臣의 딸이다. 선출되어 慎妃로 봉해졌다. 홍, 한 등이 후궁들을 강제로 육보이려 할 때 비는 거절하고 듣지 않았다. 공민왕이 피살된 후 머리를 깎고 여승이 되었다)라는 구절이 있었다. 慎妃는 中始祖이신 忠敬公의 따

님으로서 고려 31대왕 恭愍王이王后인元나라魏王의 딸인魯國公主가 죽자王의后妃로 선출되어妃에 봉해졌는데王에게는當時의學者인李齊賢의 파님인惠妃와李義의 딸인益妃安克仁의 파님인定妃등의后妃가 있었는데공민왕 14년 2월에魯國公主가難產으로죽게되자王은심한우울증으로后妃들을괴롭히고멀리했는데이부분고려사에서는“密會嬖臣汚辱后宮~王은 믿는 신하들에게온밀히令을내려后宮들을욕보이게했다.”라고했다. 이중惠妃와愼妃는온갓유후을물리치고王이죽자머리를깎고여승이된것이다. 이러한女人의기질을이어받은廉門의女人들은고려멸망후隱居했던집안에자라면서清廉한기질과굳은節義를가난속에서이어받고모진세월을극복하려면허술한구석이나태만이어찌용납되었겠으며야무진女丈夫가되지않고는어찌家計를이을수있었겠는가싶다.

요즘같이 어려울때強勒하고곧은節義를이어받은廉氏의女人들이여, 가정에서사회에서유감없이우리門中고유의기질을발휘할때가 바로지금인것이다.(林內樵夫)

람이아니겠는가.

사는보람을얻으려면책을찾아읽지않으면안된다는것은옛말이되어버린듯도하다. 텔레비전을비롯한전자매체는생활주변에서끊임없이일어나는희한한사건을그때그때알려주고,재미있는볼거리로하루종일 사람을붙잡아놓는다. 3백페이지가넘는책한권을읽어내자면아무리빨리건등건등넘겨도일고여덟시간은책의포로로묶여있어야만한다. 숨막히고답답한노릇이아닐수없다. 책속에길이있고,미래의꿈이있다고그토록외쳐대도“책읽는것이버릇이되지않아서”“책읽는취미를붙이지못해서”“책읽는것이재미가없기때문에”등을책을읽지않는이유로삼게되었다. 하긴그말을타박할수도없게되어버렸다. 그래도“책읽을시간이없어서”읽지못한다는성인들은책이란읽어서좋은것이고,언젠가는읽어야만열려있는삶을살아가고,모든것을받아들여남과의교통을원활히펴나가는지름길임을모르지는않는것이다. 그래서독서행위가가치구현의수단이라는인식을완전히내몰아버리지는않았다. 그러기에이런글을쓸맛도있으리라. 비록재화가모든가치를망라하는상징이라는배금주의풍토속

군독서량은아직도10권을넘기지못했다. 달마다한권씩은읽었지만여름두달동안은한권도읽지않았다는말이되기도한다. 고등학생이7.2권, 중학생이10.8권, 초등학생이28.2권을읽었다(1996년국민독서실태조사).

하루에책(학교의교과서제외)을잡고앉은시간도초등학생이67.5분인데비하여성인은그절반쯤인38분이라고한다. 나이가많을수록책을멀리하고있다. 고교생이나중학생들의독서량이빈약한것은입학시험준비에시달리기때문이라고해두자. 읽을만한책이드물다는말을하는사람들에게그런평계를주지않으려면좋은책이많이나오도록해야할일이다.

읽을만한책이많지않다는사실을국민독서율을올리지못하는이유로내세우는경우가적지않다. 좋은책,읽을만한책이눈에얼른띄지않는다할수도있다. 세상을편하게살고,남보다빨리돈을벌수있는비법을가르쳐주는책이나,심심풀이시간폐우기로휘적휘적들쳐보다가내버려도아깝지않을책은얼마든지지천으로쌓여있다. 요즘무슨책이잘팔리느냐고물어봐서서점점원이집어주는책이라면책사기에고민할필요가없다. 좋은책을고르기란친구나

출판사이름,책값만가로석줄로내놓은책을훑어보면서적광고에도해설기사에도없는,찾고있었던바로그보석같은책이반드시숨어있다. 이보석의이름을찾아내지못하거나찾기를귀찮아하는사람이라면그는책한권도읽을필요가없을만큼무슨일에건통달해있는사람이거나,책을읽을의욕이나지적탐구의준비가되어있지않은사람이라고할수밖에없다.

책을읽지않는다고잡아가두거나면전에서모욕을주는사람은없다. 책을읽지않는다고부유해지지못하거나권세를누리지못하는세상도아니다. 읽을책을사자면책값만큼의돈이야들겠지만책을읽어유쾌하고,가슴에담기는감동은누가뺏아가지도못하고흉내낸다고되는일도아닌것이다. 책읽는이의관심의깊이와넓이를키워주는외길은바로독서행위가닦아주는것이아닐까. 행여책한권을다읽고책장을덮는순간귀중한시간과노력이아깝다싶은경우를만난다면,읽는이가그만한노력을부었기때문에그책이감동을주지못했다는사실을체험하게되었을것이다.

基瑢(서강대 강사)

先祖님의 行蹟(고려 과거제도에서)

高麗史에 나타난 科舉制度를 살펴 先祖님의 行蹟一部를 살피고자 한다.

고려사 권73에 의하면 三國 이전에는 科舉制度가 없었고 太祖때에 學校는 있었으나 人才를 뽑는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가 光宗9年(958년) 5월에 唐나라 제도를 많이 채택한 雙翼의 의견에 따라 인재를 뽑기 시작하였다. 學校로는 國子, 大學, 四門이 있었고 또 九齊學堂이 있었으며, 科舉에는 詩, 賦, 頌을 製述케 하여 進士를 뽑고 겸하여 儒學經傳을 시험치는 明經과 醫卜(의술과 복술)등의 과도 있었다.

國子監試는 進士試라고도 하는데 德宗때에 처음으로 설치하고 賦, 六, 十韻詩를 시험쳤으며 成均試 혹은 南省試, 舉者試라고도 하였다. 升補試는 後進을 격려하기 위한 生員을 뽑아 벼슬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 毅宗元年に 처음 설치되고 詩, 賦와 경서의 뜻(經義)을 시험과목으로 하였다.

科舉에 應試할 수 있는 자격은 五逆 五賤 不忠, 不孝, 樂工이나 악공의 자손에게는 주어지지 않았고, 科舉의 실

시간격은 해마다 혹은 한해 건너등 정해져 있지 않고 定員數도 없었으며, 應試者는 姓名과 本貫 및 四親(父, 祖, 曾祖, 外祖)의 성명을 試院(과거를 관장하는 관청)에 제출하였다. 시험관은 통상적으로 二府(門下부, 密直司)에서 知貢舉(시험관), 卿, 監에서 同知貢舉(부시험관)을 1명씩 뽑았고, 考試官 혹은 都試驗官이라고도 했는데 國子監試나 升補試에서는 지공거 혹은 동지공거로 하지 않고 각 1명씩 만을 지정하였다. 대체 科舉

를 통하지 않고는 卿大夫라 할지라도 벼슬길에 나가지 못했으나, 숨은 인사의 추천이나 공신의 후손들에게는 特採하여 職을 주었는데 蔭識이라 했다. 합격은 시험관의 추천으로 王이 결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합격者에게는 紅牌를 주어 합격증으로 하였고 통지는 처음에는 王이 사신을 본가로 보내 통지하였는데,後來에는 王이 면전에서 합격서를 주었다. 또 試驗官과 합격者的 관계는 恩門이라하여 師父와 弟子의 관계가 恪別하였다. 고려사를 통해 각年の 과거기록 중 廉門과 관계가 있는 해의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고려 仁宗 24年(1146丙寅)에 李仁實이 지공거로 되고 崔誠이 동지공거로 되어 黃文富등을 뽑았다.(1986년 丙寅譜 부록에 의하면 이때 孝文公, 廉信若이 及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孫錄에는 기록이 없다.(별도책 登科錄, 榜目에는 확인 못했다.)

明宗7年(1177) 4月, 樞密院副使文克謙이 지공거로 判大府事廉信若 同知貢舉로 되어 進士를 뽑았는데 崔基靜等 35명, 明經과 4명에게 及第를 주었다.

高宗2年(1215) 5月에 平章事崔洪胤이 지공거로 되고 左諫議大夫朴玄圭가 동지공거로 되어 進士를 뽑았는데 廉翔等 31일, 明經과 7인, 恩賜 5인에게 及第를 주었다.

恭愍王 6年(1357) 4月에 政堂文學李仁復이 지공거로 되고 簽書樞密院事金希祖가 동지공거로 되어 進士를 뽑았는데 廉興邦等 33人을 及第시켰다.(이때 廉廷秀도 及第에 포함되었다고 했는데 고려사에는 기록이 없다. 榜目에 미확인).

恭愍王 23年(1374) 4月에 政堂文學李茂芳이 지공거로 되고 密直副使廉興邦이 동지

監廉信若이 詩, 賦시험으로 金徵魏등 28명과 十韻詩 시험으로 李滋祐등 78명을 뽑았다.

恭愍王 9年(1360) 知申事廉廷秀가 禹洪明등 99人과 明經과 6명을 뽑았다.

什補試에 보면,

毅宗 12年(1160) 9月에 國子祭酒(從三品)廉直諒과 司業崔婁伯에게 명하여 尹敦敍 등 16명을 뽑았다.

이상은 고려사에서 拔萃(발췌)한 기록으로서 登科榜目을

보았다면 각 及第者の 全般을 알 수 있었는데 보지 못해 아쉽고 다만 科舉를 치른 해 先祖분들의 벼슬과 行蹟을 엿보는 수준에서 만족해야 했으며 이후 고려사 이외의 역사책에서나 文獻등에서 이 부분의 미비한 점을 보안하고 싶어 문중 일가분들의 提報를 기대하는 바이다.

(碧江)

昊天罔極 (강화사단의 벌초를 하면서)

昊天罔極이란 하늘 높이가 끝이 없듯이 父母님 恩惠는 다함이 없다는 뜻이다. 殘暑내려 쪼이는 드높은 가을하늘 밑에서 先祖님 祀壇을 벌초하면서 가엾는 祖上님의 恩惠와 무성한 雜草를 비교하면 錯雜한 마음 머물 곳이 없다.

時代의古今을 莫論하고 어느 僕地의 사람이건 父母와의 情은 恪別하다. 여기에는 宗教의 差異나 未開人, 知識人과의 區別도 없다. 詩經小雅篇 蓼莪(다복쑥)에 보면 父兮生我 母兮鞠我 哀哀父母 生我劬勞 生我劬瘁(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한다. 中始祖님의 享祀때 보면 일가분들 중 여러 가지 사유와 평계등으로 參禮치 못한 소식을 듣고는 한다. 하루가 다르게 變化해 가는 世態에서 어려워 가기만 하는 與件을 극복하려니 특히 活動期의 簡은이들로선 누구나 다 泊沒無暇 함에 틀림없고 축적되는 암박감이야 오죽할까 하지만 꼭 傳하고 싶은 말이 있다.

“大學”에 보면 知止而後有定定而後能靜靜而後能安安而後能慮慮而後能得(며느물을 알고난 뒤에 안정함이 있고 定한 후에 고요가 있고 靜의 후에야 便安이 있고 安

— 生活의 禪 —

사람은 언제까지

살수있는가 -

나라별로 사람의 平均壽命이 다르고 先進國일 경우 비교적 壽命이 後進國보다는 길고, 女子가 男子보다 대체로 오래산다.

우리나라의 경우 近年的 平均壽命은 70세 前後이다.

生活與件이 옛보다 많이 좋았다고 醫學이 發達하여 光復直後보다는 현저히 平均壽命이 길어지고 있다. 또 學者들은 現代醫學으로도 사람의 살 수 있는 壽命이 120歲 정도 란다.

살아가면서 어려운 諸與件들을 보다 理想되게 打開하고 超然히 精神的 平穩을 維持하며 強한 意慾이 消盡하지 않는限 사람은 죽지 않는다고 본다. 주어진 與件이 克服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前提下에서의 希望의

決言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은 健康할 수 있는 方法을 알고도 實行하지 못하고 포기해 버리는 我執을 쌓아서 肉體의 終末을 맞고 스스로 價值觀의 限界를 設定하여 意志의 無限性을 否定함으로써 精神的 終末을 맞는 것이다.

스스로 設定한 道德觀으로自身을 구속시키고自身이 設定한 宇宙觀의 領域內에서活動하다 運命이니 摄理니 하는幻覺劑에 마취되어 몸과 마음의 壽命을 決定당하고 마는 것이다. 사람들은 極樂이니 天堂을 意識속에 築城하여思惟와 活動을 制限시킴으로써秩序라는 近視限的 拘束으로 얻어지는 功利에 滿足하고 있지만 사실은 더 自由로운 存在인 것이다.

포기하지 않는限, 예속당하지 않는限, 사람의 壽命은 永遠한 것이다. 바른 希望과 굳건한 意慾이 있는限 人生은 죽어도 아니 죽는 것이다.

- 母影居士 -

공거로 되어 進士를 뽑았는데 王이 친히 시험을 쳐 金子粹 등 33인을 뽑아 12月에 及第를 주었다.(이때 廉致和가 及第)

禽王 6年(1357) 5月에 瑞城君廉興邦이 지공거로 되고 密直使 朴形同이 동지공거로 되어 進士를 뽑았는데 李文和 등 33인과 明經과 6人에게 及第를 주었다.

禽王 11年(1385) 4月에 瑞城君廉國寶가 지공거로 되고 政堂文學 鄭夢周가 동지공거로 되어 進士를 뽑았는데 禹洪命등 33인에게 及第를 주었다.(이때 卞季良 及第)

禽王 12年(1386) 5月에 韓山府院君 李縉이 지공거로 되고 三司左便廉興邦이 동지공거로 되어 進士를 뽑았는데 孟思誠등 33인을 及第시켰다.(이때 吉再도 及第~榜目에서)

國子監試에 보면

德宗初年(1032) 右拾遺이던廉顯에게 명하여 鄭功志등 60명을 뽑았다.

明宗 3年(1173) 3月에 將作

애통하다 父母님이시여 고생하시고 여위셨도다)라는 구절이 있다. 佛經에도 父母恩重經이라 하여 父母님에 對한十種大恩을 들어 은혜의 깊고 높음을 가르쳤는데 어찌 은혜가 十種뿐이겠는가. 聖經 마태복음 19-19에서는 어떤이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生命을 얻으리까.”라며 묻는 말에 “네가 生命의 나라로 들어가려거든 誠命을 지키라며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증언을 하지말며 父母를 敬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며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다.

孝經 첫머리에 孝의 實踐大綱을 가르키면서 立身揚名於後世 以顯父母 孝之終也(출세하여 그 이름을 후세에까지 칭송되게 하여 그父母의 이름을 드러나게 함이 효도의 大尾라) 했다. 참 효도는 한갓 부모님께 용돈이나 드리고 관광이나 보내드리면 孝道를 다한듯 여기는 요즘의 속된 효도의 次元과는 그 類를 달리

의 후에야 생각하고 획책할 수 있으며 慮의 후에야 수학과 결실의 얻음이 있다)라고 했으며 禪의 길에 “止觀”이라 하여 停止 또는 靜的으로 마음을 거두어 넓게 보라 하였으니, 긴박하고 어렵고 多忙 할수록 마음을 가라앉혀 다시 생각하여 方向이 제시되어 힘이나고 의욕이 용솟음쳐 난관을 극복하여 發展할 수가 있는 것이다. 스트레스(stress)를 해소시키는 방법등이 여기에 속할 것이다.

용서할 수 있는 자만이 용서를 받을 수 있듯이 祖上을 위하여 父母님을 효도로써 모실 수 있는 자만이 子孫들에게 존경을 받고 효도를 다하는 어진 후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한점 구름이 흐르는 가을 하늘에 돌아 가신 父母님의 모습이 떠 오르고 고개가 숙여진다.

相顯(大宗會副會長)

우리들의 行列(作名에 관한 小考)

그동안 大宗會常任理事職(총무)을 맡아 오면서 일가분들과 對話하는 内容中 우리 門中の 行列(항렬)을 묻거나 아들, 손자의 作名을 의뢰받는 일이 많았었다. 簡었을 때 나는 이름이란 부르기 좋고 뜻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내 손자 이름을 지어 줄 입장이 되고 또 일가분들의 부탁을 받고는 듣기 좋고 뜻만 좋게 이름을 지어 버린다는 것은 얕은 생각이라 생각되어 옛부터 이름은 어떻게 지어왔을까, 우리 門中에서는 어떠한 慣習으로 이름을 지었을까 하는 의문으로 책들을 찾게 되었다. 現代學校教育에서 얻을 수 있는 과목은 아니기에 이름을 짓는 방법에 客觀的인 定理는 없었지만 일정한 경행과 관습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통상 이름이란 他人과 区別하여 한 개인을 지칭하는 일컬

나 배우 등이 이름 대신 부른다.

(7) 宗教上의 이름……佛教에서 出家하면 僧名 혹은 法號로, 기독교 등에서는 洗禮名을 이름으로 하였다.

이 外에도 王이나 王妃의 死後에 지어주는 廟號와 徽號도 있다.

이름의 글자수에 있어서도各家口나 血族의 趣向에 따라一字名, 二字名의 차이가 있고 가끔 三字名도 있으며 글자도 漢字로 된 것이 일반적이나 근년에는 한글로 된 이름도 사용되고 이중에는 여러 글자로 된 이름도 있다.

이름을 짓는데도 일반적인 기준은 있으니 글자의 획수가 복잡하거나 남이 잘 모르는 글자, 姓字나 같은 발음의 字,男女구분이 안되는 字, 卑俗한 자 혹은 뜻이 너무 높거나, 鳥獸魚蟲의 이름자, 姓名의 전체발음이 비속한 뜻이 되는

(6) 禾, 土, 木 交代(漢山李氏)

(7) 水, 木 交代(高靈申氏)

(8) 地支를 이용하는 江陵金氏, 日, 月을 交代하는 潘南朴氏등이 있다.

排行이란 橫으로 같은 代의 弟兄, 從兄弟에서 血族(門中)全體의 같은 代에서는 二字名 일때 行列에 의한 돌림字를 쓰거나 돌림자와 같은 扁의 글로 하고, 또 나머지 一字도 親兄弟나 가까운 일가간에는 일정한 연관을 두었다. 즉 하늘의 星辰28宿의 이름이나 64卦名中에서 不祥卑惡의 글자를 除外하고 撰字하거나 名山이나 洋洋한 水名이나 古代中國의 나라이름 또는 賢人, 名相의 人名字中에서 선정하기도 하고 瑞祥의 動物名이나 草木의 名에서와 珍寶玉名, 聖甸(仁, 義, 禮, 智, 信 등)나同一偏傍, 同一音韻 등 여러 가지 종류의例가 있다.

近年에는 한 집안에 여러兄弟가 없어 적용하는 例는 드물다.

에 이름字가 같은 일가가 여러 명이 되어(同姓同名의異人) 일가가 모였을 때 구별이 어렵게 될 것이다.

例如 들어 1986년에 發行된 大同譜上 仁燮 54명, 昌燮 46명, 大燮 33명이고, 吉燮, 元燮은 20명이 넘었고 東燮, 一燮, 基燮, 日燮, 弘燮, 洪燮, 亨燮, 南燮 등 同名도 10명씩이 넘었다. 지금이 이러한 實情인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가는 人口 추세라면 後代 어느 시기에는 같은 代의 일가가 姓氏가 같으니 이름자 二字中 一字를 行列字로 하고 나머지 一字를 1,000명이 좋은 글자를 선택할 때 같은 글자와 중복되지 않으려면 어려울 것이고 同名의 일가가 더 많아질 것은 확실하다. 더욱이 作名을 하는데 같은 門中에서는 定해진 行列字를 쓰라고 권장하는 차원을 넘어 法律的으로 강요하지 못하는 한宗親會에서 정하는 行列字를 쓰기 위해 지금까지 한 小門中에서 지켜오던 行列字를 무

陰인데, 三字가 조화되어야 한다.

(3) 五行 金水木火土의 相生, 相克의 조화와 方位, 四時, 五氣, 五色등의 참작과 宮商角徵羽에 의한 音響五行의 和合이다.

(4) 三才四格 姓名三字의 획수 간의 수리개념으로 天, 地, 人의 三才와 元亨利貞의 수리

(5) 易象 周易에서의 64大成卦와 6爻動을 얻어 大卦像에서 이치를 풀이한다.

이상과 같이 命理學의 이치를 作名에 活用하고 있으나 또 보는 관점에 따라 從來의 作名法은 易學의인 점을 들어 非科學的이란 말로 價值性을 인정치 않고 부르기 좋고 뜻만 좋으면 된다는 입장으로 쉽게 作名을 하는 사람도 많아졌다. 하지만 부르기 편리하고 뜻이 좋다고 우리나라固有의 慣行을 무시하거나 아무 글자나 써서 作名해도 된다는 입장에는 쉽게 동의할 수가 없다. (碧江)

음으로 사람들은他人과의 識別指呼의 필요에서 처음에는 음성이나 부호등으로 타인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여 社會發展과 더불어 文字化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三國初期에 만도 姓과 이름의 구분이 잘 안되는 호칭이었으나 점차 貴族이나 勢力家에서부터 이름과 姓이 뚜렷이 固定되어 갔다. 한 사람의 이름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1) 名……출생후 한 사람에게 주어진 이름으로 實名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서로 부르기를 기피하는 습관이 있었다.

(2) 兒名……어릴때에서 冠禮전까지 집에서 부르는 이름으로 乳名, 假名이라고도 하며, 건강히 오래 살라고 개똥, 돌쇠 등으로도 했다.

(3) 冠名……20세전후에 冠禮를 하고 부르는 이름으로 字를 지어 서로 부르게 했다.

(4) 號……이름 대신 직종이나 취향에 따라 부르는 이름으로 한 사람에게 여러 개의 號도 있었다. 號 중에는 別號(별명)라 하여 용모, 성질 등에 따라 부른 이름도 있다. (雅號라고도 함)

(5) 謚號……옛적에 벼슬 있는 사람에게 死後 주는 이름으로 追號라고도 했다.

(6) 藝號……주로 연극인이

글자는 피하는 것이 常例였다. 또 아무리 자유로이 짓더라도 父, 祖, 近親의 이름과 중복되게 짓지 않았고, 옛적에는 王, 斯, 聖人의 이름은 따라 짓지 않았다. 또 天, 日, 甲等 文字는 長子女 外에는 쓰지 않았다.

이름을 짓는데는 그 家門全體의 이거나 한 집안에 따라 서로 血族關係를 표시하고 始祖로 부터의 代數를 나타나게 하는 방식도 있고 같은 兄弟間에도 순위와 연관을 나타나게 하는 방식이 있었다. 前者를 行列이라하고 後者를 排行이라고 한다.

行列은 縱으로 始祖로부터 같은 代의 일가들은 같은 글자를 돌림자로 하고 또 代와 代間에 연관을 갖게하는 방식으로써

(1) 五行의 순서대로 代를 交代(五行의 土, 金, 水, 木, 火字의 변을 가진 글자를 사용 ~ 坡州廉氏, 全義李氏, 慶州金氏등)

(2) 天干을 이용(甲, 乙등 글자를 나타내는 글……全州李氏, 漢陽趙氏)

(3) 數字(1, 2, 3 등……安東權氏)

(4) 文句을 사용(仁, 義, 禮, 智, 信……安東金氏, 陽城李氏)

(5) 世世水傍交代(延日鄭氏)

以上에서 作名을 하는 一般의 例와 한 世代前까지의 來歷을 설명했는데 우리 坡州廉氏 門中에서는 어떠했는지를 살펴보자.

서기 1986년(丙寅) 8월 25일 發行된 坡州廉氏大同譜 8券(甲子譜라고도 했다) 中文獻錄 59쪽에 보면 '坡州廉氏의 行列'을 說明하면서 "우리 門中은 1892년 壬辰譜에서부터 五行을 行列(돌림자)로 定하여 遵행토록 하였는데……"라고 하고

19世 ○鉉, 錫, 20世 ○洙, 永
21世 東, 秉○, 22世 ○燮, 烈
23世 圭, 基, ○, 24世 ○善, 鎬

등으로 하여 18世부터 32世까지의 行列字를 定하고 二字名을 기준으로 하여 한 代는 行列字를 上에 다음 代는 下에 行列字를 둔다고 例示하였는데 실정은 行列字가 19世와 20世가 이름자 밑으로 되어 초기부터 시행에 차질이 있었다. 그 이유는 1892년 이전부터 地域에 따라 或은 小門中에서 지켜오던 行列이 각각인데 어느 시기에 일제히 특정 지역에서 사용하던 行列을 따르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점, 재고의 여지가 있는 우리 門中의 課題라고 생각한다. 한 門中 全體가 같은 代에 行列字를 同一하게 사용했을 때

시해 버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作名과는 별개의 문제이나 大同譜에 보면 18世의 生存者가 많은데 28世의 成年이 있어 中始祖께서 돌아가신 후 615년이 되는 1997년 현재 10世 300년의 간극이 있는바 9代가 同時代에 生活하게 되는 실상으로 기현상으로 보여지며 또 28世까지 各地에서 각各 지어진 行列字를 일제히 改名토록 하기는 무리가 많아 기대하기 어렵다고 여겨진다.

우리나라에서 옛부터 이름을 짓는데는 여러 方法이 있으나 대개를 說明하면 李朝이 전에는 이름을 짓는데 胎夢에 의하거나 出生地名, 父母의 소망을 표현하는 단순한 편이었으나 李朝 이후 처음에는 姓名三字의 회수를 합산해서 8로 나누어 나머지 數로 길흉을 잡아 정하는(一相, 二將, 三窮, 四達, 五夭, 六壽, 七貧, 八富) 方法의 단순한 것이었는데 諸葛孔明法, 朱子法, 破字法, 太極圖式 등 여러 가지로 파급되었다. 그러나 最近의 方法과 기준을 大別하면 다음과 같다.

(1) 文字의 선택, 우선 漢字의 글 뜻과 이름 全體의 글 뜻이 좋고 글자의 强弱虛實은 고려되었는가,

(2) 陰陽의 조화, 이름회수에서 奇數는 陽이고, 偶數는

- 24世 昌善氏 博士學位 받음
高麗大學校 工科大學을 卒業하고 한국과학기술원에서 경영공학을 전공해 오던 廉昌善氏(己亥生)가 1997. 2. 21부로 '시계열예측에 있어서의 판단보정에 관한 연구' 題下의 論文으로 과학기술원에서 工學博士 學位를 받고 論文正本을 大宗會에 보내왔다. 昌善氏는 大宗會理事인 父圭三氏와 母 李永順女史의 2男3女中 長男이다.

편집후기

乙丑 금년 단풍은 그리 아름답단다. 들녁에는 황금물결 대풍 이루고 이 너그러운 恩惠속에 우리 일가분들 모두 보람된 結實 거두었으면……

한 해 두 번은 宗報를 내겠다는 소망은 또 숙제로 넘어가고, 병석에 계신 會長님께 인쇄비를 받고 무거운 발길 옮기면서 값진 宗報로 다듬기를 다짐하고 속히 快癒하시기를 기원한다.

무던히도 찌든 긴 올 여름 틈틈이 공부해서 모은 원고를 보면 아직도 慾望과 能力의 먼 거리를 통감하면서도 일가분들 모두가 이 宗報 읽어 주신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고 고마움인가 했다. 원고 주신 相顯, 敏燮, 基瑢님께 감사드리고 시험동안 교정봐준 惠珍에게 고마운 마음 전한다.